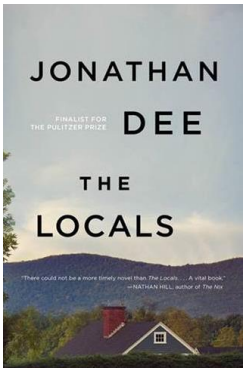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CALS
가제 : 동네 사람들
저자 : Jonathan Dee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문학

* 프랑스,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아마존 선정 2017년 8월 최우수 도서(Best Book)
* "뛰어난 관찰이 돋보이는 이 소설에서 도덕적 잣대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피플(People)」, '이 주의 책' 선정 의견
* "이만큼 시의적절한 소설도 없다. 9/11 테러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미국의 자아상과 이기주의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감과 연민이 무엇인지 솜씨 좋게 가르쳐준다." - 저술가 네이선 힐(Nathan Hill)

메사추세츠 버크셔의 작은 마을 하울랜드는 뉴욕의 부유층들이 소유한 여름 별장들이 즐비한 곳이다. 겨울이면 텅 비어 있는 그 집들 사이에 사는 마크 퍼스는 그들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늘 아등바등 돈 때문에 치이는 삶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부동산 투자에 뛰어 들었다.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빠, 건축업에 평생 몸 담으며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생각해본 적도 없이 우직하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결심한 그 과감한 도전은 너무나 잔인한 실패로 돌아왔다. 상대는 마크처럼 순진하고 남의 말에 잘 속는 성실한 사람들의 돈을 탈탈 털어 달아나버렸고, 마크는 거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이 이어지길 수 개월째, 2001년 9월 10일에도 마크는 재판 때문에 뉴욕으로 향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테러가 바로 그곳, 뉴욕에서 일어났고 금융사기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복잡한 심경으로 고향에 돌아온 마크는 재산을 날린 후 삐걱대기 시작한 결혼생활과 자신의 무기력한 상황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마음 먹는다. 때 마침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울랜드에서 여름을 나는 부자들 중에 마크의 옆집에 머무는 필립 하디라는 남자가 있었다. 뉴욕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가가 된 그에게 9/11 테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뉴욕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한 필립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 뉴욕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서민들의 마을 하울랜드로 아예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한다.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그는 마크에게 집 고치는 일을 맡기고, 하울랜드 주민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보안 카메라를 집 주변 곳곳에 설치한다. 주민들은 그저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어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도 오는구나 싶었을 뿐 필립의 등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얼마 후 하울랜드의 시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필립이 그 자리를 메우러 나서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일자리와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때문에 찌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공약으로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다. 세금을 감면하고, 연방정부가 세액 부족으로 제때 주지 못하는 공무원 월급까지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내놓고, 심지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모자란 돈을 자신이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싫어할까? 사람들은 그의 배포와 넉넉한 인심에 환호를 보냈다. 그와 별도로, 마크는 투자 전문가인 필립과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 번 텅 비어버린 은행잔고를 만회할 기회를 엿본다. 이번에는 대형부동산 회사에 다니다 비서와 매물로 나온 저택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이고 퇴출당한 동생 게리와 함께 필립의 조언을 받아 투자를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필립이 하울랜드 시장으로 당선된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전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역의 모습에 하나 둘 아쉬움과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다. 조금 불편했지만 귀중한 전통으로 지켜온 것들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왜 바에서 담배도 마음 편히 못 피우게 하나? 왜 늘 대던 곳에 차를 좀 대겠다는데 시간까지 재가며 주차요금을 받나?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이 바뀌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마크의 동생, 게리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필립의 어이없는 시정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자 크게 동조한다.

낙후한 마을이라 공립학교는 도저히 아이들의 학습 수준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확신에 한 해 등록금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립학교에 무리하게 딸아이를 보내는 마크의 아내 카렌, 치매의 기미가 나타난 엄마와 날이 갈수록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아버지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마크의 여동생 칸디스까지, 소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고된 일상과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의 애타는 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갑자기 나타난 억만장자 시장이 일으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한다. 재산까지 공공 목적으로 선뜻 내놓지만 서서히 권위주의적 권력자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필립은 과연 좋은 정치인일까,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나쁜 사람일까? 궁핍하고 살기가 팍팍하다는 이유로 한탄하다가 그 고민을 해소해준 사람에게 금세 돌아선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그저 편의에 따라 견해를 이리저리 바꾸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유권자일까? 작가는 아무런 가르침도 계도도 없이, 여러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 소개>

소설가인 조너선 디(Jonathan Dee)는 뉴욕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0년 『The Privileges』로 퓰리처 상 결선 후보에 오르고 2011년 Prix Fitzgerald 문학상, St. Francis College Literary Prize를 수상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고문 작가, 「파리 리뷰」 선임 편집장으로도 활동했다.

제목 : THE END OF ALL THINGS
가제 : 종착점
저자 : Rachel Howzell Hall
출판사: Tor/Forge
발행일: 2018년 1월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오마주,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인터넷도, 전화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너야 닿는 섬과 그 섬에 자리한 고급 저택,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도 무료로 주어진다면 아마 마다할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추리 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소설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발신인이 보낸 편지 혹은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멕시코의 믹틀란 섬으로 떠난다. 7일간 예정된 신비한 섬에서의 휴양 혹은 모험에 뛰어든 사람은 총 일곱 명. 각자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목적과 이유 때문에 택한 이 여행은 살인, 고립, 공포로 얼룩진 지옥 같은 시간으로 변한다.

미리암에게 믹틀란 섬 여행을 제안한 건 방송국이었다. 총 일곱 명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섬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리얼리티 쇼 형태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승하지 않고 참가만 해도 1,000달러는 벌 수 있다는 소리에 미리암은 귀가 솔깃했다. 남편이 딸아이의 발레 강사와 눈이 맞아 새로 살림을 차린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미리암은 아직도 바뀌어버린 삶에 적응을 못한 상태였다. 오히려 이 변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감만 강해져 몸도 마음도 떠나버린 남편 빌리의 집에 수시로 쳐들어가고,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고, 약물 과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허다했다. 이제 곧 열일곱 살이 되는 딸마저 그런 미리암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인생을 존중하라고, 두 사람은 한낱 불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꾸짖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계속 발레를 해서 성공하고 싶지만 엄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며 남편과 그 선생의 달콤한 제안을, 가령 디즈니랜드에 데려간다든가 하는 일들을 신나게 받아들였다. 미리암은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서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해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부정한 두 남녀에게 지기 싫은 마음에 법정 소송까지 진행중인 터라 미리암에게는 돈이 절실했다. 리얼리티 쇼? 전국에 얼굴 팔리는 것쯤이야 무섭지도 않았다. 출발 전날까지 빌리의 집에 찾아가 다음 날 아침 형사까지 집에 찾아오게 만들 만큼 소동을 벌인 미리암은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멕시코로 향했다.

남편과 똑같은 고급 시계를 차고 아이패드만 들여다보고 앉아 처음부터 미리암을 대놓고 무시하는 중년 남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화려하게 꾸민 20대 여성, 미리암이 사는 로스앤젤레

스에서는 길에 수두룩한, '멋 내기용'으로 근육을 잔뜩 키운 청년, 그리고 스페인계 사람으로 보이는 요리사 등 미리암이 처음 받은 편지 내용처럼 낯선 얼굴들이 약속장소에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그램의 보안 규정상 이들은 한 곳에서 만날 때까지 각자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고, 다 함께 호화 요트에 올라 믹틀란 섬의 고급 저택 '아르테미스'로 가게 되어 있었다.

특별한 기회를 거머쥔 이 운 좋은 여행자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는다. 야자수 커다란 잎사귀 위를 날아 오르는 나비들,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푸른 바다 풍경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몰라 움츠려 있던 모두가 수심을 잊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잠시 느낀 설렘은 곧 불안감으로 바뀐다. 아르테미스 저택에서 앞으로 함께 지내야 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뜻밖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변호사였다. 미리암을 비롯한 나머지 여섯 명 모두가, 같은 변호사와 일을 해왔는데 그가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왜 유언으로 자신의 고객들을 이런 요상한 여행에 초대했을까? 전해진 이야기로는 분명 환상적인 여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지만,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알고 있는 변호사가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일곱 명은 내심 불안한 마음을 쉽게 털지 못했다. 그러나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어도 본토로 데려다 줄 다음 배가 며칠 뒤에 도착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리사가 죽은 채 발견되면서 이 여행은 꿈 같은 기회가 아닌 섬뜩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사실로 드러났다. 죽은 요리사는 직접 복어를 손질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살인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나머지 여섯 명은 누가 살인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과 마주한다. 환각과 총기, 약물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개개인의 과거사가 우연치 않게 공개되자 일곱 명의 공통분모는 변호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은 왜 이 섬에 초대되었을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이 노리는 것이 모두의 죽음인 것만 확실해지는데, 그 치밀한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고 살아남는 사람이 나타날까? 빠른 전개와 이어지는 반전이 흡입력을 더하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이첼 하우젤 홀(Rachel Howzell Hall)은 2002년 평단의 호평을 받은 소설『A Quiet Storm』(Scribner, 2002)으로 데뷔한 소설가이다. 『Lou Norton Mystery』시리즈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국립 암 연구소 'City of Hope'에서 과학 저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LAST THING SHE EVER DID
가제 : 마지막 순간
저자 : Gregg Olse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8년 1월 1일
분량 : 380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중국,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찰나에 내린 끔찍한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지, 과거가 현재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관찰한 소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하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IE TO ME의 작가 J.T. 엘리슨(J.T. Ellison)**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없을 때 내린 선택은 언제나 후회를 부른다. 충동구매나, 다이어트 중에 유혹에 넘어가 폭식할 때나, 너무 화가 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쏟아냈을 때,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다행히 그런 섣부른 판단의 대부분은 그리 큰 피해를 남기지 않는다. 의지가 약한 자신을 탓하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한 것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일순간 선택이 남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면? 후회해봐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이 여러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범죄 소설의 대가로 꼽히는 작가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다.

데슈트 강이 길게 이어진 오리건 주의 작은 마을에 두 부부가 나란히 살고 있다. IT 회사에 다니는 남편 오웬과 함께 4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한 리즈와 2년 전쯤 마을에 새로 이사온 캐롤과 데이빗 부부였다. 리즈는 이 동네 토박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 사는 집에서 모든 방학을 보냈고, 두 분이 부모님께 이 집을 물려주신 뒤에는 틈날 때마다 찾아왔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오웬과 함께 전 재산을 털고 은행 빚까지 져가며 이 집을 사들였다. 리즈의 마음을 알기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오웬은 이사 온 직후부터 이 낡은 2층집은 어느 한 구석 멀쩡한 곳이 없다고 투덜댔다. 리즈가 스물아홉 살 그리 젊지도 않은 나이에 법대에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했다. 리즈에게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릴 때부터 꿈꾼 삶이기도 했지만 빠듯한 살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무시해도, 늦깎이 학생 노릇이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네 시간에 걸쳐 치러질 중요한 시험을 앞둔 9월의 어느 날, 그 시험 때문에 간밤을 꼬박 새고 새벽녘에 잠이 들어버린 그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졌다.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사고였다.

오웬과 리즈가 장난감 집처럼 허물어지는 옆집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렇게 되자고, 낡은 집은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좋은 집을 새로 짓자고 결심할 때 리즈는 너무 부러운 나머지 새로 올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캐롤과 데이빗, 그리고 동화 속에서 톡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 귀여운 부부의 세 살배기 아들 찰리는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구글에서 7년간 국제팀을 진두지휘하면서 마흔 살 초반에 이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번 캐롤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이빗,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한 찰리의 가족은 리즈의 눈에 세상의 행복을 모두 가진 사람들 같았다. 물을 좋아하는 찰리가 두 집에서 내다보면 바로 보이는 강가에 수시로 나가 놀면서 자연스레 리즈와도 만났고, 그렇게 두 부부는 금세 가까워졌다. 생활수준도, 사는 모습도 너무 다르지만 리즈와 캐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게 어쩌면 문제를 더 키웠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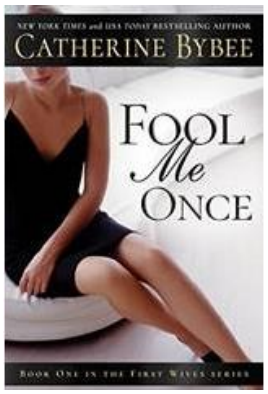
데이빗이 레스토랑에 출근을 하고 찰리가 강가에 나가 노는 사이 캐롤은 전화통을 붙들고 골치 아픈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창 밖으로 아이 뒷모습을 계속 확인했는데, 마지막 대화가 조금 길게 이어지는 사이, 그 몇 분 사이에 찰리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워낙 개구쟁이라 또 어딜 갔나 싶어 서둘러 찰리가 서 있던 곳으로 가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주변을 거닐던 사람들도 어린 아이는 못 봤다는 대답뿐이었다. 찰리는 마흔 살이 다 되어 기적처럼 낳은 아이였다. 서른다섯에 임신을 했었지만 데이빗은 중절수술을 하자고 설득했다. 레스토랑이 한창 잘 되어가는데, 사업에 전념했다가 살림이 더 넉넉해졌을 때 낳자는 이야기였다. 사실 캐롤도 막 책임자로 승진을 한 시점이었고, 커리어가 착착 쌓이던 그때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남편 의견에 따르는 척 중절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데이빗 말대로 형편이 확 핀 이후에는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벌 받는 거라고, 이기적인 자신의 선택이 자초한 결과라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찰리가 생긴 것이다. 캐롤에게는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각성제와 커피를 들이키고도 새벽에 곯아떨어진 자신과 그 와중에도 자기 생각만 하는 오웬을 욕하며 미친 사람처럼 시험장을 향해 가던 리즈는 찰리를 차로 치고 만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리즈를 대신해 현장으로 온 오웬이 피범벅이 된 아이와 주변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비밀에 부치기로 한다. 아이를 친 것보다 숨기기로 한 것, 이것이 더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비극이 줄지은 이후였다.

친한 이웃의 천금 같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리즈는 죄책감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광기는 점점 고조되어 간다. 세상 누구도 모를 것 같았던 그 날의 끔찍한 사고는 피 말리는 배신으로 리즈를 덮치고, 사고 순간부터 리즈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또 다른 이웃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오싹하고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그렉 올슨(Gregg Olsen)은 현재까지 총 아홉 권의 소설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가이다. 『The Boy She Left Behind』, 『The Sound of Rain』 등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썼고 USA 투데이, 월 스트리트 저널의 소설, 논픽션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수 차례 이름이 올랐다. 출간된 종이 책만 모두 합쳐 500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저명한 문학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



제목 : FOOL ME ONCE
가제 : 속임수
저자 : Catherine Bybee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7년 9월 19일
분량 : 348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스

*** 「퍼블리셔스 위클리」 2017년 가을 로맨스&에로틱 소설 톱 10에 포함**
***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가 선보이는 새로운 로맨스 시리즈 첫 권**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결혼할 때부터 확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위장 결혼 서비스'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로리의 역할은 그 특별한 결혼과 이혼을 법적으로 돕는 것이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뜻하지 않게 이혼으로 끝난 후, 로리는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바보 같은 짓은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친구 샘이 시작한 이 은밀한 사업에 동참했다.

위장 결혼이 필요한 이유는 참 많다. 혼기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심하게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려고, 임종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 카메라 앞에, 화려한 파티장과 각종 행사에 대동할 그럴듯한 파트너가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기혼자라는 안정적 이미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1년, 길어야 2-3년 안에 깔끔하게 이혼수속을 밟을 한시적 배우자를 필요로 했다. 대부분 돈 많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은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질 여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알리안스 같은 회사가 딱이었다. 로리는 변호사답게 신랑과 신부의 혼전계약서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고 양측이 각자 바라는 목적 혹은 대가를 원만하게 얻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위장 결혼을 하는 부부 중에 4분의 1 정도는 이혼 서약서를 폐기하고 진짜 부부가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남녀 관계는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는 알리안스의 고객들이 꽤 있었다. 셰넌, 에이버리, 트리나도 그런 고객들이었다.

정치적 이미지 때문에 아내를 구하던 의원과 결혼한 셰넌은 그가 주지사로 당선된 후 예정된 절차대로 이혼 수속을 밟았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2년이 지나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셰넌은 그렇지 않았다. 가짜 부부로 사는 동안,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 것이다. 알리안스를 통해 계약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이혼한 에이버리는 반대로 얼른 약속한 이혼 날짜가 오기만을 고대했다. 그리고 트리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태를 겪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 죽은 가짜 남편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며느리로 철썩 같이 믿고 있던 트리나에게 남겼다. 당황한 시아버지와 남편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트리나를

괴롭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다. 이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는 트리나를 위해 로리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고급 크루즈 여행을 제안하고 셰넌, 에이버리도 초대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세 사람에게 한숨 돌릴 기회도 주고, 로리 자신도 잠시 쉴 수 있기를 기대했던 이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리드 발로우라는, 매력적인 남자와 만난 것이다.

크루즈 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리드는 처음부터 로리의 눈을 사로잡았다. 다소 냉정해 보이지만 아첨하지 않는 담백한 성격, 그러면서도 자신과 세 여성들을 따뜻하게 챙겨주고 배 위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처럼 기사처럼 나타나 도와주는 듬직한 모습에 로리는 이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제대로 흔들린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또 누군가에게 빠지는 일은 없으리란 호언장담을 이 남자 때문에 취소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리드 역시 로리에게 바짝 다가왔다. 심지어 리드도 로리와 같은 LA 사람이라 여행이 끝나도 관계를 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마음에 꼭 들고, 모든 여건이 딱 맞는 사람을 바다 위 배 안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사실, 이 운명 같은 만남이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

리드는 한때 경찰로 일하다가 사립탐정으로 분야를 바꿔 뒷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드러나지 않게 수사 실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었다. 주지사가 이혼한 아내와 처음부터 위장결혼을 했다는 단서를 잡은 사람들의 의뢰로 셰넌의 뒤를 캐기 시작한 그는 떳떳하지 않은 경로로 구한 정보를 통해 알리안스라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아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행객을 가장해 크루즈 선까지 오른 것이다. 경찰 출신답게 법을 잘 알기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조사하는 법을 잘 아는 그는 의뢰인이 누구든 조사해야 할 상대가 누구든 개의치 않았다. 조사할 때는 어떠한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는 것, 의뢰인과 조사 대상자의 삶에 자신이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것이 리드의 철칙이었건만 로리와 만나면서 그 단단한 원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리의 편에 서면 고객과의 약속을 져버려야 하고, 그 대가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로리를 모른 척 하면 위장 결혼의 실체를 알아낸 의뢰인이 셰넌은 물론 알리안스와 로리의 인생을 박살낼 것이 불 보듯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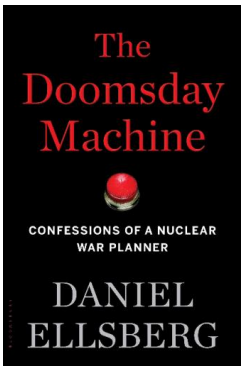
리드는 고민 끝에 자신의 정체와 배에 오른 목적을 로리에게 털어놓고, 어떤 대가도 달게 받으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로리는 첫 만남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를 외면하고 자신 역시 궁지에 몰린다. 과연 리드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챙겨주고 싶다고 느낀 로리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까? 미스터리와 여성 소설의 요소가 가미되어 우정과 뜻밖의 사랑, 용서와 진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바이비(Catherine Bybee)는 스물일곱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소설가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도서가 모두 합쳐 총 350만 부 이상 판매되고 12개 언어로 번역됐다. 대표작으로는 『Not Quite』 시리즈, 『Weekday Brides』 시리즈, 『Most Likely To』 시리즈 등이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DOOMSDAY MACHINE
가제 : 멸망을 부르는 기계
(부제 : 핵 전쟁 기획자의 고백)
저자 : Daniel Ellsberg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7년 12월 5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역사(전쟁) / 회고록



* **"'100번의 홀로코스트'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의 정신 나간 계획을 깊숙한 곳까지 드러낸 책.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앞으로도 영원히 일촉즉발의 상태로 머무를 것이라는 경고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외침이다." - 에드워드 스노든**
* **"핵 무기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극적으로 설명하고, 이 멸망의 기계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가장 시급하게 읽어야 할 책." - 「북리스트」**

미국 정부의 군 전략 분석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군사 연구를 선도하는 랜드 코포레이션에서 근무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국방부 일급 기밀 문서를 폭로한 사람, '전설적인 내부고발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저자가 이번에는 1960년대 미국의 핵 프로그램이 담긴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무기 정책이 70년의 세월 동안 위험천만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어쩌다 태평양 사령부의 공군 기지까지 핵 공격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인류 전체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갈 핵 전쟁 기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활기를 띄며 우리를 위협하는 핵 무기의 오랜 유산을 설명한다. 아이젠하워 정권의 후반기, 케네디 정권의 초반에 마련된 핵 전략을 당시 그 계획을 세운 내부 관계자의 눈으로 가장 정확하고 과감하게 폭로하고 그 근본적인 전략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도록 섬뜩한 실제 사실들이 담긴 역사서이자 회고록이다.

저자는 랜드 코포레이션을 떠나면서 미국 정부의 핵 무기 정책이 담긴 문서를 챙겼다. 그 속에 담긴, 40년 이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은 쿠바 미사일 사태나 이후 10여 회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진 일촉즉발의 상황을 무사히 넘긴 것이 기적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위태로운 핵 정책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암울한 사실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위험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하급 지휘관도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다. 저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의 현재 국방 정책으로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폭로한다. 외부 세력이 먼저 공격을 해올 경우,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역사에 '악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무기와 전쟁의 통제권을 쥔 경우 "대체 왜 이런 멋진 도구를 활용하지 않나?"라는 비극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쟁의 목적이 '정의 구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저자는 아직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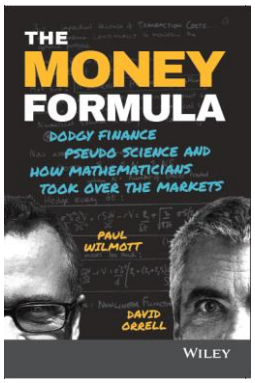
<목차>

시작하면서
머리말
1. 폭탄과 나: 어떻게 우리가?
2. 명령과 통제
3. 위임
4. 이와쿠니
5. 태평양 사령부
6. 전쟁 계획: 합동 전략능력기획서(JSCP)
7. 번디의 브리핑
8. "나의" 전쟁 계획
9. 합참의장을 향한 질문: "얼마나 많이 죽게 됩니까?"
10. 베를린과 미사일 격차
(이하 생략, 총 2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는 1961년에 미 국방부와 백악관 고문으로 일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의 핵전쟁 계획 수립을 도왔다. 이후 국방부 문서를 빼돌려 강연과 글을 통해 핵의 위험성과 내부고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의 선임 위원이며 오스카 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The Most Dangerous Man in America'에서도 그의 업적이 다루어졌다. 저서로는 『Secrets: A Memoir of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2002)가 있다.

제목: MONEY FORMULAR
가제: 돈의 공식
저자: Paul Wilmott, David Orrell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7년 4월 7일
분량: 264 페이지
장르: 경제



* "유머와 사고방식, 명료성, 과학, 상식이 담긴 책.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타협도 없다." - 학자이자 전직 트레이더, 나심 니콜라스 탈렙(Nassim Nicholas Taleb)
* "현대 양적 재무에 관한 참신하고 생생한 설명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위험성과 2008-2009년의 경제적 재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금융 제도를 통찰력 있게 독창적으로 평가한 중요한 내용을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Beat the Dealer』의 저자, 에드워드 O. 소프(Edward O. Thorp)

2008년 말에 절정에 다다른 전 세계 금융위기는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 금융계에서 수년간 썩 시원치 않은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의 사태가 국지적인 피해를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복합 금융상품이라는 미명으로 10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팔려 나가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위기 관리 기술은 위기를 줄이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하고, 도덕적 해이에 위험한 인센티브가 급증하고, 다양성이 결여되고, 규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수학자들은 심리 분석가처럼 행동하면서 조력자 행세를 한 것,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모여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근간이 제대로 뒤흔들린 것이다. 수학적인 모델로 투자 결정을 돕는 '양적 재무' 분야의 전문가인 두 저자는 이 암울했던 위기를 우리가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기보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이를 위해 거대하고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경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양적 분석이 그 해결열쇠를 찾아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내용 중 첫 5장은 양적 재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따라가보고 위기 분석, 채권 가격의 책정, 포트폴리오 보험 등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경제 위기 사태가 벌어진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 양적 재무의 기본 원칙을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과 함께, '금융 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멋진 공식을 소개하고 경제학자, 투자 전문가들이 이 공식을 얼마나 오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살펴본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날 양적 재무가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 예측한다. 주식투자 상담가로도 불리는 금융시장 분석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설명하고 이들

의 활동이 금융 시스템을 어떤 위기로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짚어본다. 경제가 뉴턴의 법칙처럼 기계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이들의 잘못된 전재와 금융시장에 수시로 나타나는 혼란과 불합리성, 극심한 불균형 상황을 무시한 분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는 한편, 규제 당국의 역할, 수학적 모델이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실제 상황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적절한지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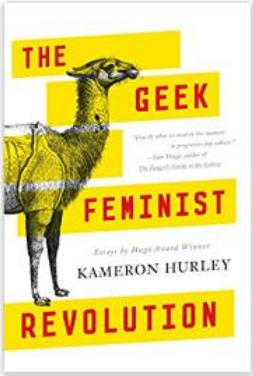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장. 초기 모델
2장. 무작위로 향하다
3장. 위기 관리
4장.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
5장. 파생상품의 파생
6장. 금융시장 분석가의 역할
7장. 고쳐 쓰기
8장. 법은 없고 장난감만 남다
9장. 시스템을 망치는 법
10장. 체계적인 위협
맺음말: 단순하게 생각하라

<저자 소개>

폴 윌못(Paul Wilmott)은 연구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 컨설턴트, 펀드 매니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Paul Wilmott on Quantitative Finance』와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 Quantitative Finance』 있다.

데이빗 오렐(David Orrell)은 응용 수학자로 과학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Systems Forecasting'의 창립자이다. 『The Future of Everything』, 『Economyths』등 여러 저서를 썼다.



제목 : THE GEEK FEMINIST REVOLUTION
가제 : 괴짜 페미니스트 혁명
저자 : Kameron Hurley
출판사: Tor Books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사회과학(여성학)

***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2017년 로커스 어워드(Locus Award) 최우수논픽션 상 수상작**
*** "예리한 분석, 뚜렷한 주장, 요구 사항이 분석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버무려진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저자가 속한 SF 소설 분야의 동료들과 독자 모두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살거나 스타워즈 같은 특정 영화가 삶 전체를 지배하는 괴짜 같은 인물은 대부분 남성으로 등장한다. 왜 엉뚱하고 기발한 것에 심취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을까? 일명 '괴짜'들이 뛰어들 만한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대상이 주로 남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쓰고 수상 경력도 있는 저자는 이 불균형한 세계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분이 높아지면서 얼마나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혼란스럽고 놀라운 상황을 이 책에서 상세히 들여다본다. 여성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한 남성들의 비이성적이고 무지막지한 반발이 게임, 공상과학 소설 분야 같은 대중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라는 큰 범위에서 대대적으로 휘몰아치고 그로 인해 그 분야에 뛰어든 여성들이 어떤 공격과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고발하는 동시에, 이 정당치 못한 전쟁에서 당당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에세이 형태로 각 장에 담겨 있다. 저자가 그저 관찰자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직접 겪으면서 생생하게 체험한 일들이 더해져, 세상 어느 한 곳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을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여성은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5-30 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 게임 크리에이터의 40-50 퍼센트를 차지한다. SF 소설 분야에서도 작가의 40 퍼센트가 여성이고 판타지를 비롯해 상상의 세계가 무대가 되는 소설의 전체 독자 중 60 퍼센트가 여성이다. 이제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여성의 자리를 하나 마련하던 시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분야에 여성들이 핵심 구성원이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늘 나타나게 마련이고, 남성들로 치우쳐진 문화가 여성의 몫이 늘어나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이들의 거센 반발과 반격이 온라인이며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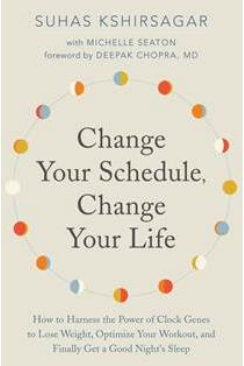
론, 각종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성별의 균형을 다시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목표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설명하고, '괴짜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여성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요구하고,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주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성 차별을 독자와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신나게 활용하려는 대형 미디어 기업의 만행에 놀아나지 않고 그러한 매체를 통해 슬그머니 사람들의 인식에 당연한 듯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별의 정당성을 없애기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힌 의미 있는 에세이다.

<목차>

머리말: 혁명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1부. 레벨 업
- 인내, 작가로 성공하려면 갖춰야 한다고 우리를 속인 기준
- 팬케이크는 내가 만들게: 글쓰기 게임에 들어오기, 그리고 나가기
- 마케팅과 광고에서 배운 실패의 가치 등 (총 5장)
2부. 괴짜
- 유독 더 괴물 같은 남자들이 있다: 드라마 <True Detective>의 남성들과 괴물들
- <다이하드>, '헤티에라', 핀업 걸: 비판
- 아내, 장군, 난민: <매드맥스>의 사람 경제 등 (총 13장)
3부. 인신공격으로 가 볼까
- 비극 속에서 희망을 찾다: 내가 우울한 소설을 읽는 이유
- 뚱뚱한 사람의 대중 연설
- 결국 만나게 될 거야… 네가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등 (총 9장)
4부. 혁명
-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권력, 저항, 이야기
- 남아프리카에 살면서 깨달은, 미국에서 백인으로 사는 것의 의미
- 데이트와 윤리의 문제 등 (총 9장)
맺음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저자 소개>

카메론 헐리(Kameron Hurley)는 에세이 작가이자 공상과학, 판타지 소설가이다. 휴고 상을 수상한 『We Have Always Fought』를 비롯해 『Worldbreaker』, 『Gods' War』 3부작 등을 썼다.



제목 : CHANGE YOUR SCHEDULE, CHANGE YOUR LIFE

가제 : 생활 주기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저자 : Suhas Kshirsagar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8년 1월 3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

*** 멕시코와 스페인어 번역 계약 체결**

*** 하버드대 출신 의학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디팍 초프라의 서문 포함**

"매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보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이비 의사나 코미디언이 할 법한 소리로 들리는 이 이야기를 건강 관리의 원칙으로 삼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건강법을 제시해온 학자가 있다. 그 주인공인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이자 대학 교수인 저자는 생물학적 리듬을 좌우하는 일명 '시계 유전자'에 관한 현대 의학의 연구결과를 유서 깊은 아유르베다 의학의 지혜와 적절히 결합하여 체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잘 자고, 세포 수준까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생물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려고 식사를 건너 뛰거나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운동을 하는 것, 자신은 '올빼미' 타입이라며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리고는 주말이면 대낮까지 잠을 자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남의 얘기 같지 않은 현대인의 이 흔한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인체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 저자는 우리 몸이 생물학적 리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시간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유전자 수준까지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생체 시계를 제어하는 유전자는 건강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주 사소한 변화도 건강을 지키는 균형을 크게 깨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주기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체중 관리나 불면증 해소,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을 덜 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생체 주기, 생활 패턴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생체 주기와 개개인의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체중이나 수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된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는 한편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고 운동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현명한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30일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을 망치는 생활 주기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진단 퀴즈'를 따로 마련하여 독자가 자신의 신체 유형과 마음 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건강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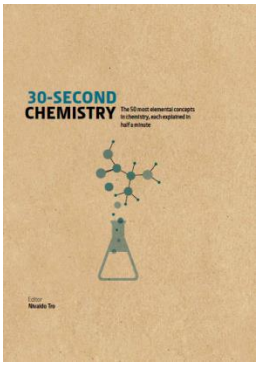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학적 리듬과 인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간 생물학의 원리를 십분 활용하여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법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강서다.

<목차>

서문: 의학박사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
1장. 여러분이 아니라 생활 스케줄이 문제
2장. 인체 시계 활용하기
3장. 몸에 귀를 기울여라
4장. 잠은 기적의 약이다
5장. 올바른 수면
6장. 음식이 여러분을 만든다
7장. 올바른 식생활
8장.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운동
9장. 올바른 운동
10장. 계절별 인체의 변화
11장. 생애 전체로 본 계절
12장.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법

<저자 소개>

수하스 크쉬르사가(Suhas Kshirsagar)는 저명한 아유르베다 의사로, 아유르베다 의약업체 'Ayurveda Rasashala'에서 연구자로 근무하면서 아이오와 주 마하리시 경영대학 부교수 겸 의학부 책임자 역임했다. 임상 현장에서 현재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제목 : 30-SECOND CHEMISTRY
가제 : 30초 화학
저자(편집) : Nivaldo Tro
출판사: Ivy Press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과학(화학)

*** 필수 개념 50가지를 골라, 단 300개 단어와 이미지 하나로 30초 만에 설명하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리즈**
*** 생물학과 물리학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화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책**

과학과 수학은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만 같은 분야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일상 생활에서 그 필수 원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음식'이라고 부르는 건 먹어도 되는데 돌 덩어리는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특정 재료를 조합한 음식은 맛이 끝내주는데 어떤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한 입도 못 먹을 만한 맛이 될까? 가만히 있는 물질이 있고, 공기와 만나면 성질이 변하는 물질과 잘못 두면 폭발하는 물질은 무엇이 다를까? 물질의 조성과 구조, 특성, 변화 양상을 들여다보는 '물질의 과학', 화학의 핵심 개념 50가지를 짤막하고 알기 쉽게 총정리한 책이 완성됐다. 160가지 이미지와 함께 한두 페이지에 우리가 흔히 접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화학의 중요한 개념과 이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화학의 핵심은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으로 그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를 찾고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전체의 특성도 알 수 있다고 본다. 철학에서 환원주의라 일컫는 이 개념은 살아 있는 생물을 포함하여 물질의 행동과 기능을 설명하는 강력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로 활용되어 왔다. 물질이 그보다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처음 제시되었지만 과학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였다. 그리고 18세기에 미립자 모형이 수용되면서 화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무엇이고 그 입자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진 끝에, 마침내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원자와 분자가 결합된 방식, 즉 구조가 전체 물질의 특성과 기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음과 모음, 혹은 알파벳 26개가 각기 다른 조합으로 모여 글자를 만들고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91개의 원소가 다양하게 모여 특성도, 모양도 모두 다른 수많은 화합물을 만들어 낸다.

바로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물질의 독특한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구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다. 20세기 후반, 화학과 생물의 결합은 생명을 구성하는 복잡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큰 고

통을 안겨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물질,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는 기술로 발전했다. 심지어 생물을 구성하는 유전 단위, DNA를 직접 조작하여 살아 있는 생물의 구조와 특징까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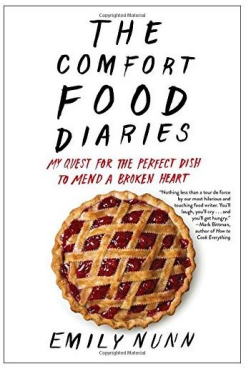
이 책은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화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고 발전하여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탄생하고 인류의 생활이 대폭 변화하기까지 화학이 일으킨 영향과 그 중심에 선 핵심 개념을 페이지마다 제시한다. 각 개념마다 관련된 인물과 함께 알면 좋은 개념이 추가로 나와 있고 '30초' 설명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3초'로 줄일 수 있는 간단 요약과 '3분'으로 늘릴 수 있는 더 상세한 내용도 동시에 나와 있어서 독자가 정보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원자, 분자, 화합물
- 용어 설명
- 물질은 입자로 구성된다
- 원자의 내부 구조
- 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등 12장으로 구성
물질의 상태
- 용어 설명
- 물질을 하나로 붙드는 힘
- 기체 상태
- 액체 상태 등 총 8장으로 구성
화학 반응과 에너지학 (12장으로 구성)
무기화학 (8장으로 구성)
유기화학 (9장으로 구성)
생화학 (8장으로 구성)
핵 화학(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니발도 트로(Nivaldo Tro)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웨스트몬트 칼리지의 화학 교수이다. 동 대학에서 우수 강사로 세 차례, 우수 연구자로 한 차례 선정됐다. 직접 편찬한 화학 교과서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어로 번역됐으며 전 세계 600 곳 이상의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목 : THE COMFORT FOOD DIARIES
가제 : 위안을 주는 음식
저자 : Emily Nunn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요리

* **"유머러스하면서 감동적인 책. 절망과 우울증을 이겨낸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회고록이다. 가족과 친구, 사랑의 가치를 몸과 마음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음식을 통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다." - 「커커스 리뷰」**
* **"강력한 문장과 풍성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회고록. 마음을 들뜨게 하는 동시에 가슴을 저미게 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들처럼,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 심지어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슴에 잊지 못할 고통과 아픈 기억을 하나쯤은 안고 살아간다. 차이가 있다면 무작위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식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 고백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일러주기도 한다. 썩 단란하지 않은 대가족의 셋째 딸로 태어나 뉴욕에서 잘 나가는 작가로, 기자로 활동하던 저자는 신이 매일 곁에서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던 시간들을 즐기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신세로 추락했다. 그리고 술의 힘을 빌려 페이스북에 너무 많은 말을 털어버린 어느 밤, 다음 날 물론 허공에 두 발을 수십 번 차고도 남을 만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던 인생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뜻밖의 기회가 그 민망함과 함께 찾아왔다.

늘 요리를 사랑했던 저자는 미국 곳곳을 돌며 소원해진 가족들과 만나고,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 직접 요리를 해 주고 그들이 만들어준 정성 가득한 요리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절대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서서히 닫히는 것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들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위안을 얻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낫게 하는 음식의 놀랍고 신기한 영향을 깨닫는다. 이 책은 그 유쾌하고 감동적인 저자의 여행기, 회복기이자 저자가 특히 치유의 효과가 우수하다고 느낀 음식들의 레시피가 담긴 미니 요리책이기도 하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들과 만나 소박하지만 좋은 기억과 의미가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저자의 이야기는 어떠한 훈계도, 우쭐함도 없이 진솔하고 담백해서 더 감동적이다.

직업이 일주일에 많게는 다섯 번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 글을 쓰는 것, 그러다 마음에 드는 주제가 떠오르면 언제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로 일하다 너무 잘생긴 남자와 만나 약혼을 하고, 비행기 일등석에 올라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 삶이 참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 저자는 바로 밑의 동생이 호텔 방에서 혼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년 넘게 만난 약혼자와도 이별한 뒤 저자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기댄 건 술이었다. 동생과 아주 절친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수용해주지도 못한 약혼자에 대한 원망, 술이 증폭시키기만 하던 그 어두운 감정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먹는 음식들로 조금씩 아물어 간다. 가감 없이 털어놓으면서도 과장이 없는 저자의 이야기는 깊은 상처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목차>

1. 체리 주빌레, 그 밖에 위험한 음식들
2. 에즈라 파운드 케이크
3.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몽 다이어트
4. 위안을 주는 음식에서 위안을 찾다
5. 땅콩, 피클, 컨트리 햄의 약효
6. 증조할머니의 짓궂은 레몬 케이크
7. 가족이란
8. 짐승의 뱃속
9. 구조
10. 종소리
(이하 생략, 총 1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밀리 넌(Emily Nunn)은 프리랜서 작가로 「Vogue」, 「Men's Vogue」, 「Elle」, 「Details」 등 다양한 매체에 음식, 요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10년 가까이 「뉴요커(The New Yorker)」에서 예술 분야 편집자로 일하면서 극장, 레스토랑에 관한 글을 썼다.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에 실은 기사로 상을 받기도 했다.